

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·협력 실행방안 검토

- 「제10차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」 개최(10.17.) -

정부는 10월 17일(목) 16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「의료인력 전문위원회」(위원장 윤석준) 제10차 회의를 개최하였다.

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「공유형 진료 지침」제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인력 공유와 관련된 기존 제도*를 운영하면서 발생했던 엄격한 신고절차·요건 등 장애요인을 살펴보았다.

▲ 순환당직제, ▲ 「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」, ▲ 「개방형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」 등

의료현장에서 수요가 높거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료협력 체계와 연계하여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고, 구체적인 모델 확립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.

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가 필요한 질환, 지역, 공유·협력 형태 등을 논의하고 이를 유형화하는 등,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 모델을 논의했다.

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“인력 공유를 적용할 수 있는 유형들을 제시함으로써, 제도적 틀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나가겠다” 라고 밝혔다.

<붙임> 제10차 「의료인력 전문위원회」 개최 개요

담당 부서	의료개혁추진단	책임자	과장	강슬기 (044-202-1880)
	의료인력혁신과	담당자	사무관	양대형 (044-202-1883)

일 시: '24. 10. 17.(목) 16:00

참석자

- (위원회) 전문위원장 및 각 위원
- (복지부) 의료개혁추진단장, 보건의료정책관, 보건의료정책과장, 의료인력혁신과장 등

논의안건(안)

- ① 제9차 전문위원회 결과 보고
- ② 기관 간 의료인력 공유 협력 운영 방안

진행순서

시간		주요 내용
16:00~16:05	'5	모두말씀
16:05~16:20	'15	제9차 전문위원회 결과 보고
16:20~16:35	'15	기관 간 의료인력 공유 협력 운영 방안
16:35~17:55	'80	토의
17:55~18:00	'5	폐회